

영광군, '초소형전기차' 군민대상 실증서비스 실시한다

19개소 총 55대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5개 차종 51대 초소형전기차 통해 데이터 수집

영광군은 초소형전기차를 활용한 군민 대상 실증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소형전기차는 정격출력 15kw 미만, 최고속도 80km/h 이하의 1~2인승 차량으로 3시간 1회 충전에 약 100km주행이 가능하다. e-모빌리티 중심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집중투자를 이어오고 있는 영광

군은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인 '초소형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그간 사업 추진을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과 실증데이터 수집 분석 체계를 구축해 왔다. 미래 교통문화의 핵심 이동수단인 초소형전기차의 품질과 서비스 고도

화 및 새로운 이동 사업모델 개발을 통해 초소형전기차 시장 저변 확대와 중소·중견기업 위주인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며 영광을 중심으로 초소형전기차를 활용한 소규모 물류배달 및 카셰어링 서비스,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서비스 지원 등 총 4개 과제에 대한 실증 수행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만남의광장, 구 우시장 주차장, 읍·면사무소 등 19개소에 총 55대의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를 설치하였으며, 도내 최초 완성

차 제조업체인 대마산단 입주기업 캄시스가 생산하는 세보C 등 5개 차종 51대의 초소형전기차를 투입하여 각 과제별 사업수행을 통한 실증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계획이다. 초소형전기차 카셰어링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대마산단) 이동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운전 면허증 소지 군민과 관광객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간단한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후 소정의 사용료(쏘카 카셰어링-1시간 기준 4,380원,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서비스-무료) 지불 후 누



구나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영광=서희권기자

영암군,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접수

오는 20일까지 접수
영암군이 오는 20일까지 위생관리 상태, 시설,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기 위해 2020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신규 신청대상은 지역 내 일반음

식점으로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하며, 개인별 덜어 먹는 앞접시, 국자, 집게 제공 등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로 세부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이며 매년 모범음식점 기준 지정 업소에 대한 철저한 재심사와 신규 우수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다.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조사 평가,

3차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초에 모범음식점을 최종 지정 예정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부착 ▲쓰레기봉투 지원 ▲음식문화개선 물품을 지원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영광=조대호기자

목포시, 조위 상승에 따른 해수 침수방지 철저

오는 18일~20일까지 바닷물 수위 5m이상 상승 예상



목포시는 10월 18일~10월 20일(오후 15시~18시) 사이 바닷물 수위가 5m 이상(조석표상 10/19 최고 5.10m) 상승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문, 하수문에 대해 사

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안저지대에는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로 인한 침수 피해가 예상되므로 저지대 차량 주차는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하여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목포=박정수기자

무안군, '전화 한 통이면 청사 출입 OK'

무안군은 오는 10월 15일부터 청사 출입시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에서는 규정 방문객들에게 연락처 등을 방문대장에 작성토록 하였으나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필기구와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우려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출입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청사 방문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청사별 지정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전화번호와 방문일시가 서버에 자동 저장되고 4주간 보관된 뒤 자동폐기되는 방식이다. 김산 군수는 "안전하고 편리한 시스템 도입으로 청사를 방문하는 군민들의 불편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함평군, 매달 17일 '함평한우 먹는 날' 월 1회씩 최대 11%까지 할인행사 실시

함평군은 매달 17일을 '함평한우 먹는 날'로 정하고 함평 생(生)비빔밥 식재료센터(시장 옆)에서 열린다. 함평에서 사육된 1등급 한우를 부위에 따라 최대 11%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17일이 일요일이면 전·후 장날(12일, 22일 중 1일)을 할인 행사일로 변경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첫 할인행사는 함평전지전통시장에서 실시한다. 함평=김광춘기자



신안 팔금면, 메밀꽃 만개

주민들이 경운·파종하여 메밀밭 조성 주민 큰 호응



신안군 팔금면의 도로변에 메밀꽃이 만개했다. 가을을 맞아 팔금면 도로변에 활짝 핀 메밀꽃이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해 정서적 불안감을 겪는 군민과 관광객에게 커다란 위안을 주고 있다. 팔금면의 메밀밭은 지난 8월 관내 이장과 주민들이 각자 농기계를 동원하여 직접 경운·파종하여 메밀밭을 조성하여 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순수한 팔금 주민과 같은 하얀 메밀꽃이 너무 어울리고, 내년에는 식재면적을 확대하고, 각 섬별로 특색있는 꽃을 심어 사계절 꽃피는 천사섬 신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근 암태면 오도선착장에서는 10월 16일부터 온라인소곡박람회가 개최되어 팔금면 메밀꽃을 찾는 관광객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동취재본부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